

2021년 신기술 연계 만화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서면평가 종합심사평

이 사업은 만화 IP를 활용해 실감형 콘텐츠로 접근하는 것과 신기술을 적용하는 접근으로 크게 과제가 주문되었는데, 실감형과 신기술 등에 대한 요구로 사업설계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사업계획과 목표산출, 수행과정에 대해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폈다. 기술적 적용에 대한 설명에서 다소 구체성이 떨어지는 점이 실제 발견됐다는 평가가 있었다. 참여자의 역할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살펴봤다.

이 사업은 만화에 기술을 적용하는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사업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반면 수행 기간은 짧는데 사업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서 사업설계가 잘 준비됐으면 하는 바람은 평가위원들의 공통적인 주문이었다.